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16일 MBC '달콤살벌 패밀리' 출연진. 왼쪽부터 이민혁, 문정희, 정준호, 강대선 PD, 유선, 방민아, 정용인. /연합뉴스

“조폭 아바도 피곤해요”

MBC '달콤살벌 패밀리' 정준호·정용인 주연 “한층 더 웃겨드려요”

제목에서 대충 분위기는 감지된다. 웃길 것 같고, 웃기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MBC TV가 '그녀는 예쁘다' 후속으로 오는 18일부터 방송하는 새 수목극 '달콤살벌 패밀리'는 영화 '두사부일체'로 웃음의 호흡을 보여줬던 정준호와 정용인이 다시 뭉친 코미디다. 14년 전 '두사부일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뒤늦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영동과 두목 계두식을 연기했던 정준호는 이번에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 사는 게 힘든 건 여느 가정들과 다를 바 없는 충심파 보스 윤태수를 연기한다. 조폭은 조폭인데 기 센 마누라 잔소리를 견뎌내야 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 빠진 이 대신 잇몸으로 버티며 살아야 한다. "뒀다 죽겠다 잠말루~"를 입에 달고 살 만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바쁘지만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고, 분리수거와 남은 음식 먹여 치우기를 담당하며 산다. 그래도 전교 1등의 모범생 아들이 삶의 낙과 보람을 안겨준다. 조폭도 평범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음은 앞서 2007년 영화 '우아한 세계'의 송강호가 보여준 바 있다.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가족들과 우아하게 살고 싶었던 '우아한 세계'의 조폭 가장 강인구는 그러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윤태수는?

스토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정준호는 "조폭을 미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공감과 위안을 주자는 취지에서 (조폭 부분은) 무겁지 않게 다뤄질 예정이다. 가족적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런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사부일체'에서는 정준호의 부하로 나왔던 정용인은 이번에는 지역 유지인 충심건설 사장 백기범을 맡는다. 정용인은 "세 친구", '두사부일체'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밟아봐 봐야 코미디가 바닷을 드러냈다고 생각했다. 그런 데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 정준호가 같이하자고 해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준호는 "'두사부일체' 명콤비로서 다시 한 번 발전된 연기, 앙상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웃음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많이 기다렸고, 둘이 함께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문정희와 유선이 극중 이들의 부인으로 출연해 기 싸움을 펼친다. 문정희가 연기하는 김은옥은 '깡패 마누라 18년차로 어지간한 깡패는 우습지도 않은' 열혈 아줌마다. 남편 윤태수를 쥐잡듯이 잡지만 남편이 무사히 들어와야 다리 뺀고 잠이 들 정도로 늘 남편을 걱정하는 속 깊은 아내다. 유선은 윤태수의 첫사랑이자 백기범의 전처 이도경을 연기한다. 화려한 외모로 어디 가든 주목받는 존재로, 백기범과 이혼 10년 만에 딸을 데리고 다시 백기범 앞에 나타나면서 '분란'의 싹을 틔운다. 제작진은 "솔한 유혹과 어려움이 닦쳐오지만, 윤태수가 가족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내고 당당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페이스로 넘치는 휴먼 코미디로 풀어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including 'EBSe 생활영어', '성공 인생후반전', '인문학 특강(재)',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국어-일과개념>', '고교 Basic Grammar-junior',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물류관리사 시험대비강좌',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음 10월 6일 丁酉)

48년생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마음은 있으나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 72년생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판국의 생애를 가르는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5, 83

42년생 강구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추구해 왔던 비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66년생 수호보다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78년생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되있어 봐야 할 때가 됐다. 행운의 숫자 : 18, 30

‘검은 사제들’ ‘007스펙터’ 주말극장가 빅매치

한국영화 '검은 사제들'과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물 '007 스펙터'가 지난 주말 극장가 관객을 뒤흔들었다. 1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검은 사제들'은 지난 13~15일 전국 1109개관에서 1만8338회 상영돼 108만 9371명(매출액 점유율 48.7%)을 모았다. 지난 5일 개봉 이래 11일간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 관객 수는 전날(15일)까지 350만1101명에 달했다. 뽀스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를 구하려고 분투하는 두 신부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007시리즈 24번째 영화인 '007 스펙터'는 지난 주말 사흘간 전국 1105개관에서 1만4972회 상영되면서 82만8671명(37.5%)이 관람했다. 전날까지 누적관객 수는 118만5199명이다. 영화는 007시리즈 역사상 최악의 범죄집단인 '스펙터'와 007 간의 대결을 그렸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제임스 본드로 분했고, 007시리즈 가운데 역대 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샘 멘데스 감독이 재차 메가폰을 잡았다. '마션'은 같은 기간 5만7101명(2.5%)이 관람하며 조용한 흥행세를 이어갔다. 누적 관객 수는 48만41695명에 이르렀다. 재개봉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지난 사흘간 4만7898명(2.3%)을 모았다. 지난 10일 재개봉 이후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13만9535명에 이르러 다양성 영화 재개봉으로 흥행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같은 기간 스피드비그와 톰 행크스가 재결합한 영화 '스파이 브릿지'와 한국 스릴러 영화 '그놈이다'는 각각 3만8243명(1.7%), 3만1585명(1.4%)을 동원했다.



1위 108만 9371명 (점유율 48.7%)



2위 82만 8671명 (점유율 37.5%)

극동방송, 28일 전남동부지역 개국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은 12번째 네트워크인 전남동부극동방송이 오는 28일 개국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동부극동방송은 지난 6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FM 97.5MHz(호출부호 HLEI, 출력 1kw)의 주파수를 배정받고 개국을 준비해왔다.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은 12번째 네트워크인 전남동부극동방송이 오는 28일 개국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동부극동방송은 지난 6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FM 97.5MHz(호출부호 HLEI, 출력 1kw)의 주파수를 배정받고 개국을 준비해왔다.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은 12번째 네트워크인 전남동부극동방송이 오는 28일 개국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동부극동방송은 지난 6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FM 97.5MHz(호출부호 HLEI, 출력 1kw)의 주파수를 배정받고 개국을 준비해왔다.

개국축하음악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 여수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미국에서 온 콜로라도 남성 4중창단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28일 오전 7시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정·재계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조찬간담회를 연 뒤 오전 9시 전남동부극동방송에서 개국을 알리는 송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봉 사장은 "16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며 "극동방송의 개국을 통해 전남동부지역에 복음의 새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